

건설산업동향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2008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이복남·장현승

2008. 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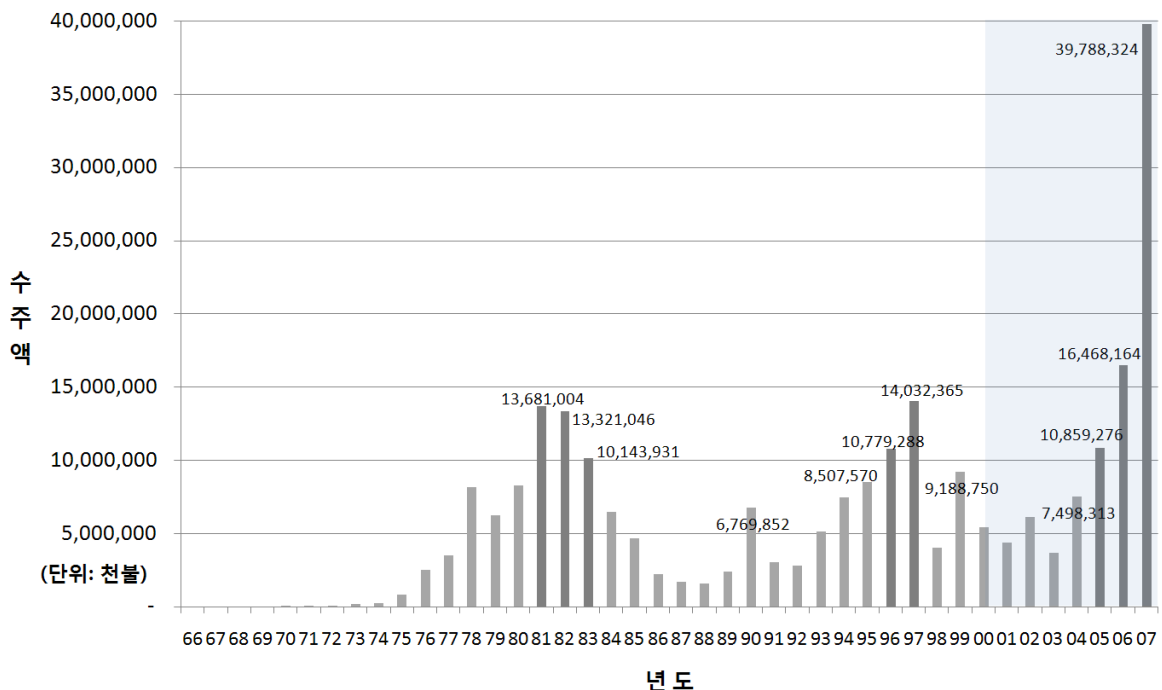
■ 서론	4
■ 세계 건설시장 전망	6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개황	12
■ 해외 건설시장 증감 요인과 영향	14
■ 2008년 한국 건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19
■ 맺음말	22

요 약

- ▶ 해외건설 시장의 지속적 상승세는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 즉 외부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의 변화 및 경쟁 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 세계 건설시장의 총 규모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약 4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국제입찰로 진행하여 자국 내 기업이 아닌 외국 국적 기업에 의해 계약하는 형태인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 건설시장의 10%수준으로 약 4,500억 달러로 추산됨.
- ▶ 국제 원유 가격이 해외 건설시장의 증감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원유 가격의 영향은 플랜트 상품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군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도 중동 지역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긴 했지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 시장에 모두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인 고유가 전망으로 중동 지역의 건설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당분간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중동 지역이나 플랜트 상품군만이 아닌 상품과 지역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 세계 건설시장은 2016년도까지 2000년도 기준(100)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권 국가들에서 평균 5.5배까지 성장할것으로 전망됨.
 - 유가 1% 상승이 해외 건설시장을 1.8% 정도 상승시키고 있는 과거 5년 간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2008년도의 해외 건설시장은 최저 6,060억 달러에서 최대 7,9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 우리나라의 2008년 해외건설 수주는 400억 달러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음.
 - 유가의 가격 급등으로 발주기관들의 시설 투자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과 기업의 수익성 사업의 선별적 선택, 그리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의 난관이 예상되나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과 중견 기업들의 참여로 350억 달러 수준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서론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는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동안은 <그림 1>과 같이 과거 추세와는 다르게 해외건설 수주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바로 2006년 사상 최대의 해외 건설 수주액인 165억 달러를 달성하고 그 후 다시 수주액이 과거 패턴과 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이어 2007년에 398억 달러라는 기록적 수주액을 달성한 시점이기 때문임.
- 과거와 달리 해외시장이 국내시장의 불황을 타계할 수 있는 필수시장으로 인식된 현 시점에서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 혹은 하락은 국내 건설산업에 주는 파급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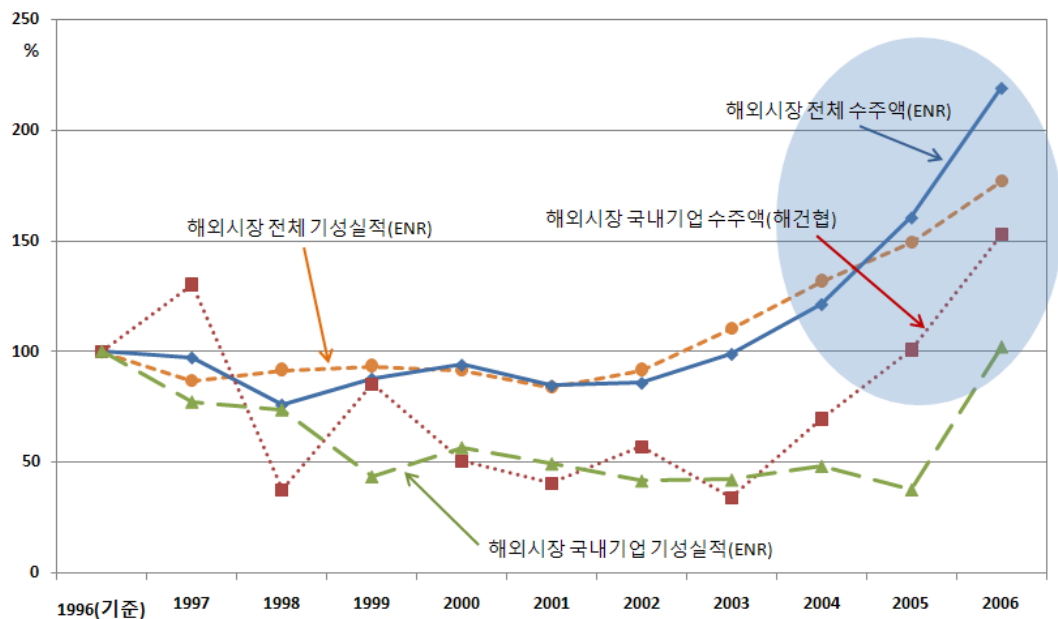


<그림 1> 해외건설 수주액의 추이 변화

- 하지만, <그림 2>와 같이 세계 건설시장의 전체 규모도 우리나라의 수주액이 높아진 만큼 크게 성장세를 이룬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액이 높아진 이유가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커

졌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오일머니로 인한 시장 규모의 확대가 큰 이유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 급상승하고 있는 해외 플랜트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수주의 65% 이상이 플랜트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발주량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그림 2〉 1996년 기준(100%) 해외시장 수주액 및 기성 실적 변화¹⁾

·이처럼 해외건설 수주의 지속적 상승세는 해외시장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 즉 외부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시장의 변화 및 경쟁 구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또한 해외건설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수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고에서는 세계 건설시장 및 해외건설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해외건설시장의 내·외부 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을 제시하고자 함.

1) 각 연도별 ENR 자료 및 해외건설협회 수주실적

■ 세계 건설시장 전망

- 한 해 동안 투자되는 세계 건설시장의 총 규모는 2007년 1월 기준으로 약 4조 5천억 달러²⁾로 추산됨.
- 권역별 세계 최대 시장은 유럽지역으로 전 세계시장 규모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권 시장 규모도 약 30% 정도로 시장 규모면에서는 선진국의 건설시장이 전 세계시장의 과반수를 넘고 있음.
- 시장 전망 전문기관인 'Global Insight'사나 미국의 건설전문 컨설팅기관인 'FMI'사, 그리고 건설전문잡지인 'ENR'지에 따르면 전 세계 건설시장의 규모는 연 평균 5~6%의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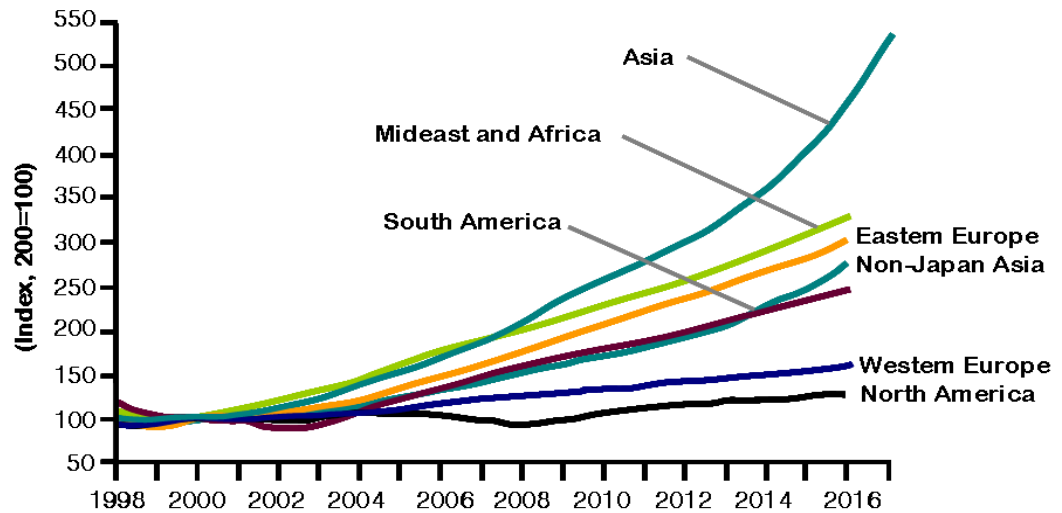
권역별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³⁾

- Global Insight사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는 국내총생산액(GDP)이 8%대 수준,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권 국가에서는 6%대 성장세를 전망함.
- 경제 성장세는 사회간접시설을 포함한 도시와 주택 등에 투자 확대로 이어져 해당 지역권 국가들의 건설시장 성장세와 직결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세계 건설시장은 2016년도까지 2000년도 기준(100)으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들에서 평균 5.5배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권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약 3.3배 정도 증가하며 동유럽권 지역은 약 3배 성장세로 전망됨. 그러나 북미권 지역은 1.3배 정도, 그리고 서유럽 지역 역시 1.6배 정도 등 미미한 수준으로 전망하였음. 일본이 포함된 아시아권 지역의 경우는 성장세가 약 2.7배

2) Asia Construct, Euro-construct, and National statistics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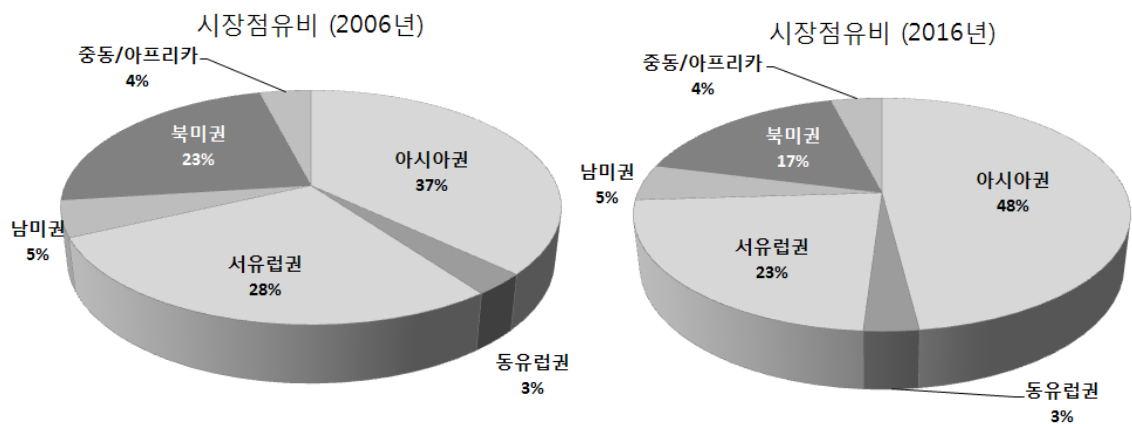
3) Fourth Annual Construction Web Event : A region-by-region view of residential, non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spending, Session I: WORLD CONSTRUCTION OUTLOOK(Setting the Stages: World Economic Environment,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정도로 일본의 건설시장은 2000년도 대비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그림 3〉 세계 권역별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 경제 시장의 중심 이동은 필연적으로 전체 세계 건설시장의 비중, 즉 파이의 구조도 변화됨을 의미함.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의 급성장세는 <그림 4>와 같이 아시아권 지역의 시장 점유비를 2006년 37%에서 2016년에는 48%로 무려 11%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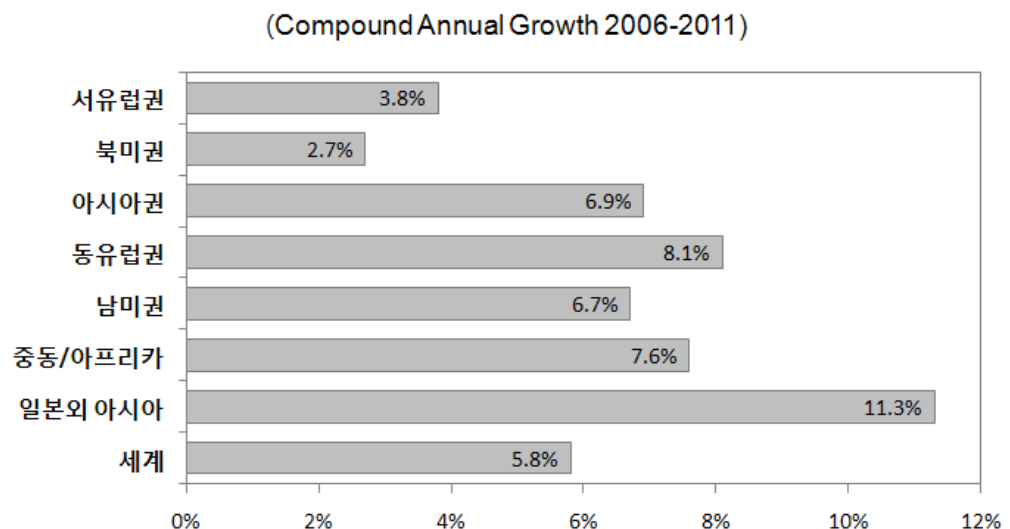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건설시장의 점유비 변화 전망

- 한편, 북미권을 포함한 서유럽권 국가들의 건설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이들 국가에 속한 글로벌기업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

권역별 중장기 사회간접시설 시장 전망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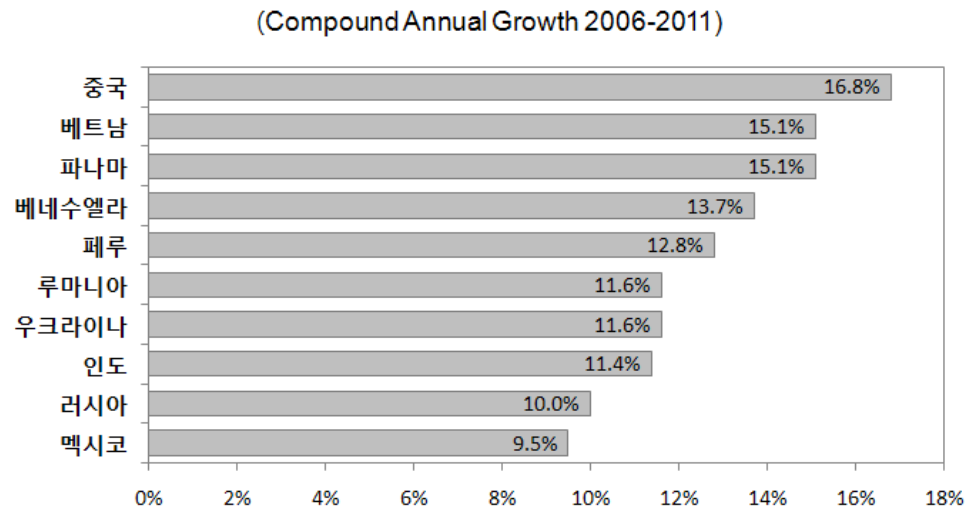
- 도로나 항만 등 세계 사회간접시설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석유나 가스 혹은 지하광물 등을 보유한 국가들이 개도국이나 선진국들에 비해 투자하는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그림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간접시설 건설시장은 2011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 동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가장 큰 성장세를 가질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내 기업들이 향후 아시아권 및 중동과 아프리카권에서 증가되고 있는 토목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림 5〉 권역별 사회간접시설 투자 전망

4) Fourth Annual Construction Web Event : A region-by-region view of residential, non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spending, Session I: WORLD CONSTRUCTION OUTLOOK(Setting the Stages: World Economic Environment,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 상위 10대 사회간접시설 투자국을 살펴보면 <그림 6>과 같이 파나마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권 국가들의 성장세가 크지만 시장의 절대적 금액보다 투자율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상위 10대 사회간접시설 투자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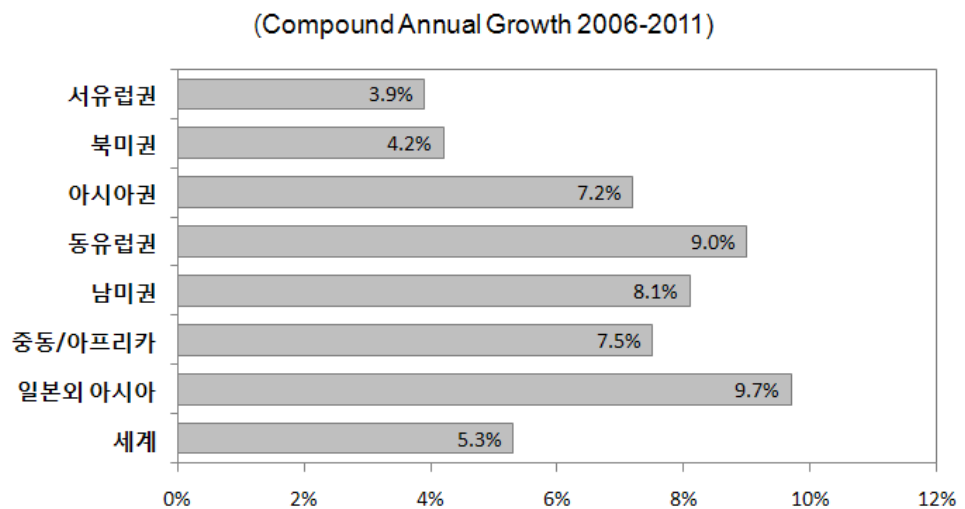
- 비록 BRICs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베트남이 세계 10대 사회간접시설 투자 국가에 포함되어 있음과 멕시코도 눈여겨 볼만한 가치가 있음. 특히 중국에 이어 베트남이 세계 제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권역별 중장기 비 주거용 건축시장 전망⁵⁾

- 사회간접시설 부문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축 부문의 시장은 <그림 7>과 같이 동유럽과 남미권이 성장세를 가질 것으로 나타남.
-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이어 비주거용 건축시장 투자에도 아시아권 국가의 시장 전망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베트남과 중국시장은 비주거용 건축시장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투자 기대가 전망되고 있음.
- 상위 10대 비주거용 건축시설 투자에는 사회간접시설 10대 투자국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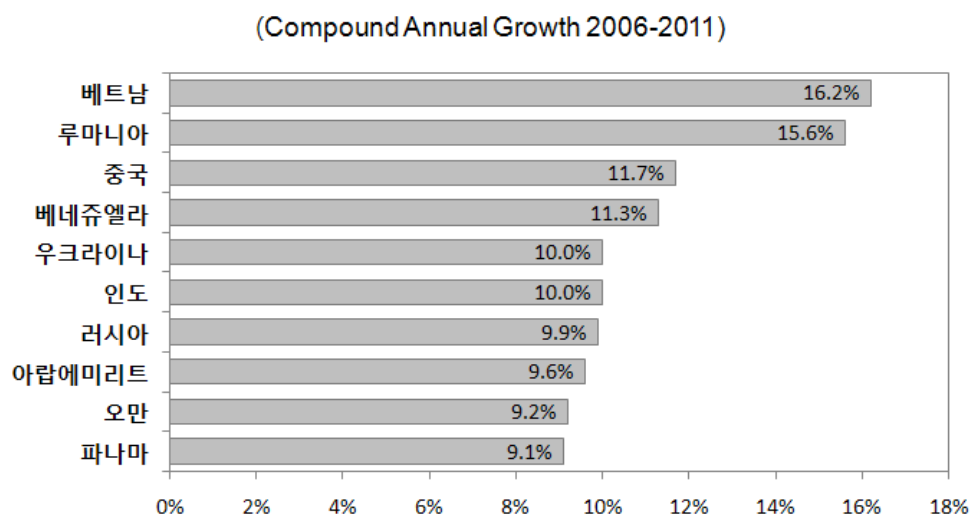
5) Fourth Annual Construction Web Event : A region-by-region view of residential, non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spending, Session I: WORLD CONSTRUCTION OUTLOOK(Setting the Stages: World Economic Environment, Global Insight, 26 September 2007)

포함되지 않았던 중동 지역의 오만과 아랍에미리트가 10대 국가에 포함되었음(<그림 8>참조). 비주거용 건축시장이지만 개별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도로와 도시 정비 혹은 신도시 건설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함을 전제로 본다면 이들 국가권에 대한 진출 전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권역별 비주거용 건축시장 투자 전망

- 사회간접시설이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임에 비해 개별 건축물은 공공보다 민간이 주도함을 고려할 경우 특히 개별 기업의 경험과 브랜드 기술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8〉 상위 10대 비주거용 건축시설 투자 국가

해외 건설시장 전망

-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세계 건설시장의 총 규모인 4조 5천억 달러 중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국제입찰로 진행하여 자국 내 기업이 아닌 외국 국적 기업에 의해 계약하는 형태로 약 4,500억 달러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06년 현재 기준으로 아시아권이 37%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서유럽시장이 28% 전후, 그리고 북미 지역이 23% 수준⁶⁾임.
- 한국 건설기업들의 주력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건설시장의 약 4% 정도로 남미 지역의 5%보다 다소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비록 중동 지역의 절대 시장 크기는 작지만 해외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⁷⁾는 이들 지역에서 적절한 건설 수행 역량을 갖춘 자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해외 건설시장이 유가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고려하고 유가 1% 상승이 해외 건설시장을 1.8% 정도 상승시키고 있는 과거 5년 간의 추세를 반영한다면 전년 기준 대비⁸⁾ 2008년도의 해외 건설시장은 최저 6,060억 달러에서 최대 7,9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참조).

〈표 1〉 국제 유가와 연동된 2008년 해외 건설시장 전망

구 분	최저값	평균값	최대값
국제 유가 (달러/배럴) ⁹⁾	80	85	105
해외 건설시장 (억 달러)	6,060	6,440	7,950

6) Global Insight, 2007.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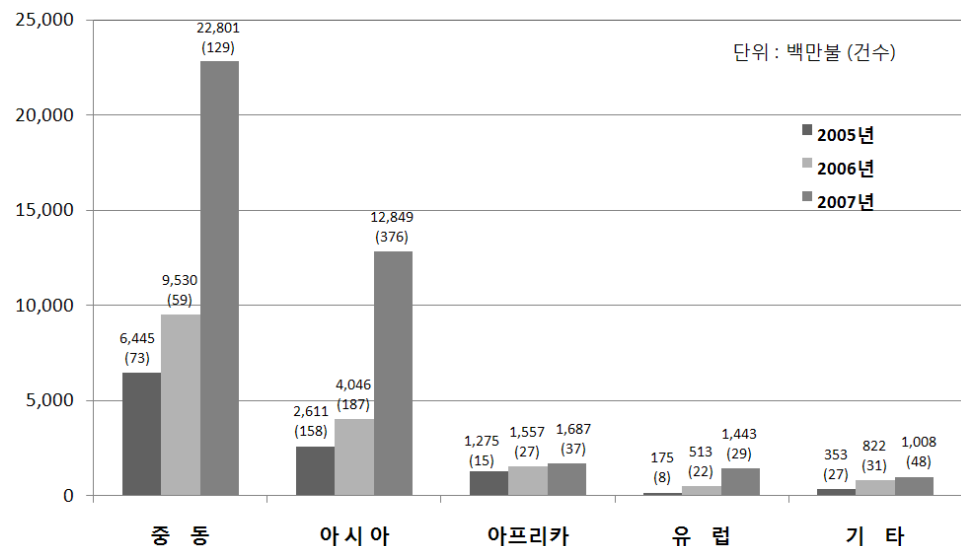
7) 전체 해외건설시장의 20% 정도

8) 2006년 약 4,500억 달러, 2007년 약 5,735억 달러(추정값)

9) 미국의 JP모건의 유가보고서(2007. 11. 9)에 의하면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수 있으나 2008년도 평균 가격은 80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골드만삭스의 경우, JP모건과는 달리 2008년 유가는 배럴당 95달러에서 최고 105달러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저 가격도 80달러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자료에 의하면 '07년도 세계평균 유가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배럴당 77.06달러('07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개황

- 2007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수주한 금액은 397억 8천8백만 달러로 2005년 109억 달러, 2006년 165억 달러에 이어 수주액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해외건설 수주의 특징은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중동 산유국에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가 크게 증가, 아시아 지역의 건설 경기 회복으로 수주 증가,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이 본격화에 따른 중소 및 중견 건설업체의 해외 사업 참여가 급증한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음.
- 지역별 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그림 9>과 같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등의 수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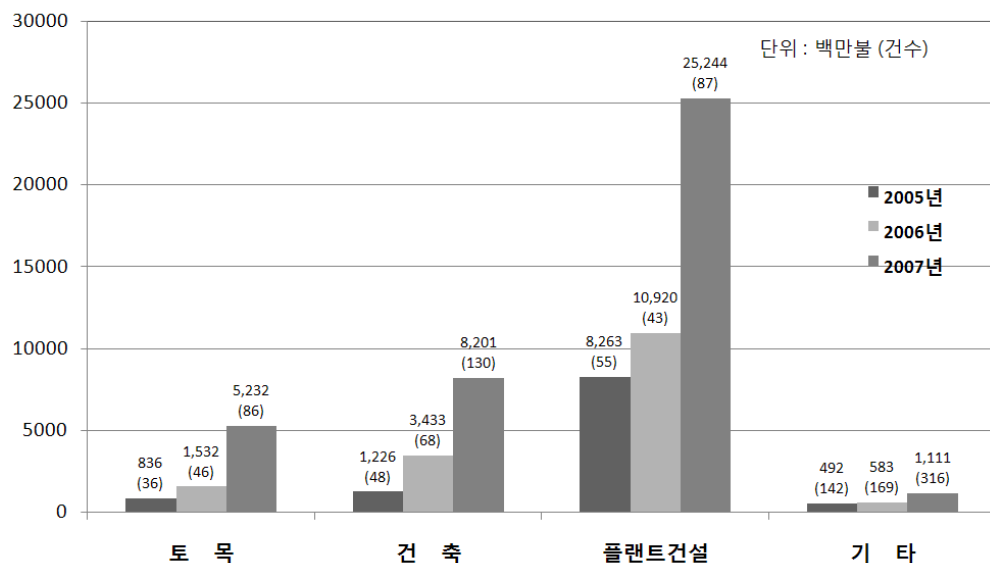


〈그림 9〉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 실적(2005~2007)¹⁰⁾

년 10월까지 기준)로 가정하면 '08년도 국제 유가는 최저 80달러에서 최고 105달러까지 예측이 가능함. 따라서 2008년도 평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해외건설시장 역시 최저, 최고 및 평균값을 전망함.

10) Source: 해건협,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동향단신, www.icak.or.kr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플랜트 프로젝트와 함께 토목, 건축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하면서 이 지역의 수주 비중이 크게 확대됨.
 - 또한, 아프리카와 유럽 등의 경우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수주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그림 10>과 같이 2006년에 이어 플랜트 부문의 강세가 이어져 전체 수주의 65%에 가까운 금액을 플랜트 공사에서 수주함. 또한 토목과 건축 부문도 지난해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총 13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함.
- 중소 및 중견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짐에 따라 2002년 91.8%에 달했던 상위 10개사의 전체 수주 점유율은 2006년 76.8%로 감소한 데 이어, 2007년에는 72.4%로 더욱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0> 해외건설 공종별 수주 실적(2005~2007)¹¹⁾

- 그러나 <표 2>와 같이 중소 및 중견 업체당 수주액이나 건당 수주액은 점차 늘고는 있으나, 이는 2007년을 제외하면 해외로 진출한 업체 수나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실질적으로 수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님.

11) Source: 해건협,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동향단신, www.icak.or.kr

- 또한, 해외시장에 진출한 기업 290개사 중 1.7%에 불과한 상위 5개 기업이 단일 기업으로 30억 달러가 넘는 수주액을 달성하였고 1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기업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수주액의 72% 이상을 상위 10개사가 수주하고 있음은 아직까지 해외 건설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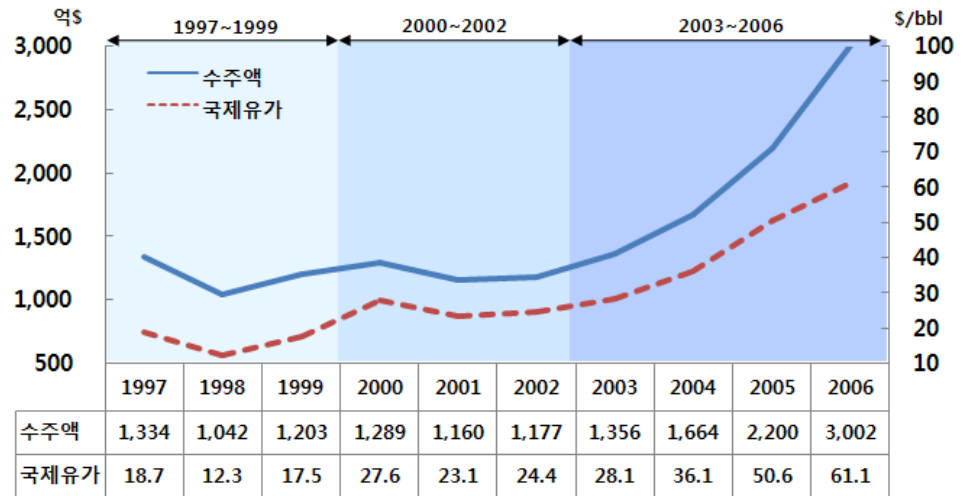
〈표 2〉 중소기업 수주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건〉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중소 업체	금 액	276 (7.5%)	426 (5.7%)	915 (8.4%)	1,335 (8.1%)	6,700 (16.8%)
	업체수	55 (64.0%)	74 (65.5%)	95 (69.3%)	132 (74.2%)	219 (75.5%)
	건 수	107 (69.9%)	141 (62.9%)	199 (70.8%)	257 (78.8%)	463 (74.8%)
	업체당수주액	5.0	5.7	9.6	10.1	30.6
	건당 수주액	2.6	3.0	4.6	5.2	14.5

■ 해외 건설시장 증감 요인과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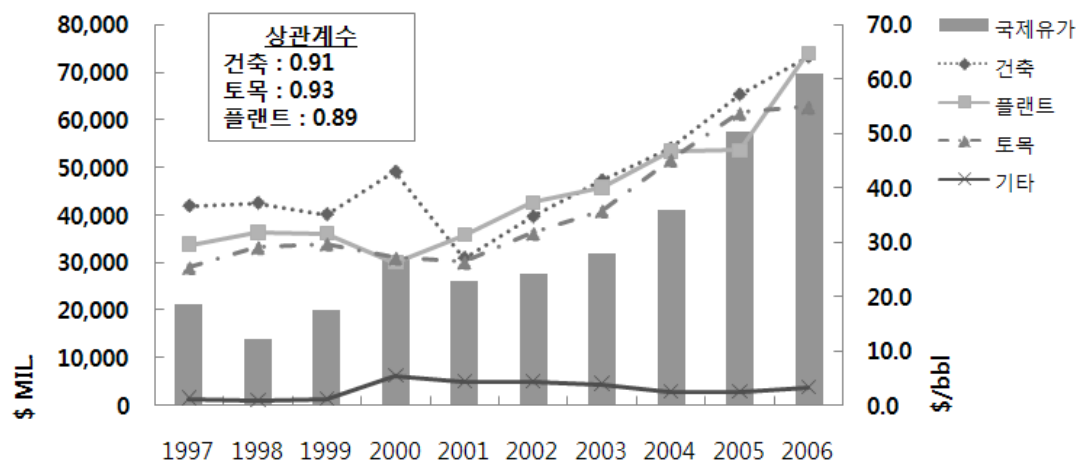
- 2007년 국내 기업들이 달성한 사상 최고 수주액은 해외시장 자체 증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또한 국제 원유 가격이 해외 건설시장의 증감과 매우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됨.
- <그림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국제유가와 해외 건설시장 증감은 상관관계가 0.97로 거의 절대적인 관계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2002년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1.0에 수렴할 만큼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



(Source: Engineering News Record: ENR, Platt's Oilgram Price 중 OPEC 평균 단가 사용)

〈그림 11〉 국제 유가와 해외 건설시장 증감 상관 관계

- 국제 유가와 상품군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플랜트 상품군이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림 12>와 같이 토목과 건축, 플랜트 모두 상품군별(토목: 0.93, 건축: 0.91, 플랜트: 0.89)로 고르게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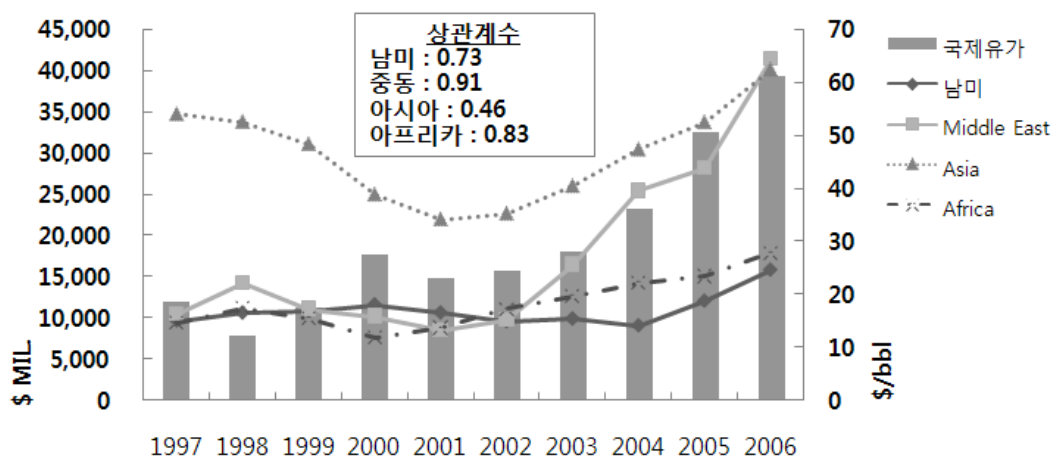
〈그림 12〉 국제 유가와 상품군별 상관 관계

- 비록 국내 기업들의 2007년도에 달성한 398억 달러 중 플랜트 부문이 6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상품군별 상관 계수 역시 국제 유가와 상품군별 수주액 증감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단지 국내 기업들이 해외건설 수주의 상당 부분이 플랜트 상품군인 이유는 중동 지역 국가라는 지역적 특성에 기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됨.

- 국제 유가와 권역별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원유 수출이 국가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일수록 해외 건설시장과의 상관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그림 13>과 같이 국제 유가와 중동 지역의 해외시장 상관 관계 정도는 0.91로 조사되었고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0.83으로 중동 지역 다음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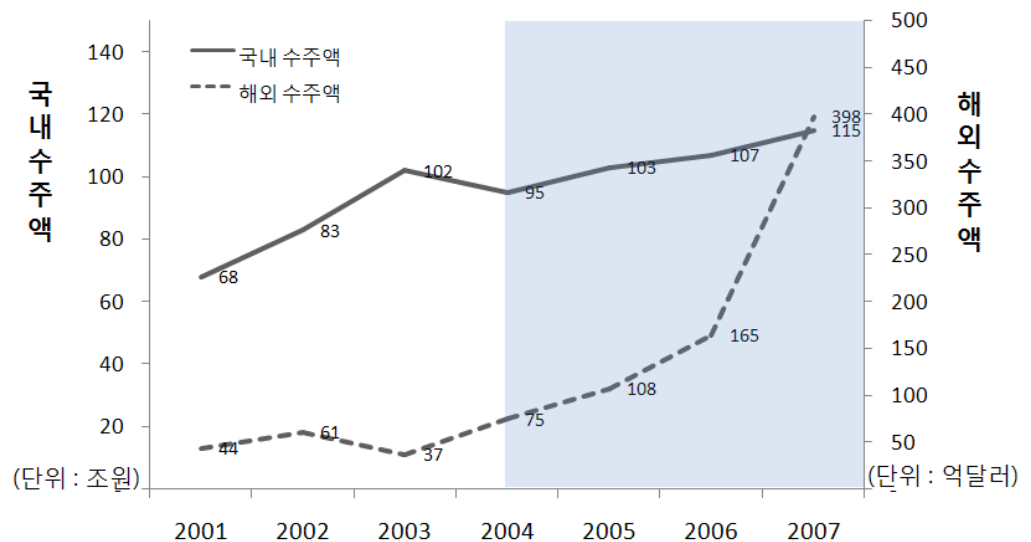
〈그림 13〉 국제 유가와 권역별 상관 관계

- 아시아권 및 중동권 지역 모두가 유가와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동권의 시장 부침이 유가와 연동되는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우는 다른 경제적인 요소가 국제 유가보다 더 많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이나 감소에 국제 유가가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플랜트 상품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품군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권역별로도

중동 지역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긴 했지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전 세계 시장에 모두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유가의 지속 전망과 중동 지역의 건설시장이 국내 기업들에게 당분간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나 중동지역이나 플랜트 상품군에만 국한 하지 말고 상품과 지역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해외 비중 확대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내수 시장의 감소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림 14>와 같이 최근 2004년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인식과는 반대 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해외시장에 기 진입해 있는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국내 시장의 대체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해외시장을 경영 전략의 포트폴리오로 보는 경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14> 국내 수주액과 해외 수주액 비교

■ 2008년 한국 건설의 해외건설 수주 전망

국가별 수주 전망

- 중동 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1월 카타르 금융센타(QFC) 원장인 필립도프가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걸프연안 6개국의 향후 10년간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산은 무려 1조 달러에 가까운 9,750억 달러 수준(<표 3> 참조)이라고 제시하였음.

〈표 3〉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의 향후 10년 초대형프로젝트 규모

〈단위:10억 달러〉

국가	인프라/부동산	관광	에너지	전기·가스·상하수도	항공	기타	합계
아랍에미리트	141	35	22	10	10	-	218
카타르	13	17	75	3	15	15	138
사우디	216	27	121	102	32	-	498
쿠웨이트	4	-	23	4	3	36	70
오만	3	16	1	1	-	7	28
바레인	3	8	1	1	-	10	23
전체	380	103	243	121	60	68	975

- 주요 프로젝트들은 두바이랜드 개발이 2010년까지 600억 달러, 사우디 킹 압둘라의 이코노믹시티에 1,200억 달러, 쿠웨이트의 실크시티 860억 달러, 사우디의 압둘아아지즈 빈무사이드 왕장의 이코노믹시티에 53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야스섬 개발에 390억 달러 등 걸프연안국 통계에서 포함되었거나 혹은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들도 추가적인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처럼 원유 판매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인 중동 국가들은 과거 소비재 구입에 상당한 지출을 했으나, 최근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산업 다각화에 주력하고 있음. 이는 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설비나 도시기반 구축에 투자를 하는 결과¹²⁾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

12) 중동 오일머니 활용방안(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2006.4

내 기업들에게는 당분간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음.

- 중국은 시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 기업들에게는 그 다지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 에너지 공급원 기반 시설을 확충¹³⁾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문에 경쟁력을 지닌 국내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부동산 및 사회간접시설은 무역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중국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소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큰 매력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경우 경제 성장성¹⁴⁾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시설 투자와 에너지 시설 투자에는 별다른 계획을 발표 않고 인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확실한 정책¹⁵⁾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투입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인도는 인구 및 경제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력 최대 수요의 약 15% 정도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는 기대해볼 수 있음.
- 브라질의 경우 사회간접시설이나 도시 개발 및 주택의 절대적인 부족에도 불구하고 세계 10대 건설 투자국이나 시장 전망국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는 브라질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함께 만성적인 국가 부채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매장된 막대한 가스 및 석유 등을 채굴하는 설비 투자와 다음 단계인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부문에 대한 장기적 투자는 기대해볼 수 있음.

13)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07년 4월에 내놓은 「전 세계원자력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까지 '06년도보다 무려 5배 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 갈 것으로 전망함.

14) 「해외건설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경쟁력 향상 방안」 발표자료, 대한토목학회, 2007.8.23

15) 인도 정부가 현재 이행 중인 국가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20억 달러의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기금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칠레의 경우 정부가 도로와 철도에 상당한 투자를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2010년까지 도로 2만 5,000km 포장 계획과 도시철도 현대화사업, 그리고 남미횡단철도 등과 같이 교통시설 부문임. 현재 칠레 정부의 재정여력 부족으로 계획 수립은 정부가 하지만 실제 추진은 외국 자본에 의한 민간 투자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국내 기업의 기회와 위협

- 북미 및 서유럽권 지역 등의 저성장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및 중동 지역권의 활발한 경제 성장으로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세는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되지만 해외 건설시장 증가가 곧 한국 건설의 해외 시장 수주액 확대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은 분명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일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대부분이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해외 건설시장 확대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해외건설 전문가 등 내부 전문 인력 부족과 역량 고갈이라는 문제점이 위협으로 다가 올 가능성이 있음.
 - 해외 건설시장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은 국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선진국 기업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함. 부족한 전문 인력은 숙련 기능공이나 기술자보다 고급 사업 책임자(senior project manager)와 감독관(superintendent), 그리고 숙련된 견적 전문가(estimator), 원가 전문가(cost) 및 공정 관리 전문가(scheduler) 등에서 특히 심각함¹⁶⁾.
 - 또한 사업 책임자급 혹은 기술 부문별 책임자급을 제외한 일반 기술자급과 현장 감독관 인력은 인도, 필리핀, 터키 등 제3국 인력을 투입하는 게 보편적이나, 최근의 해외시장 호황은 제3국의 전문 인력조차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임.

16) Contractor Personnel Shortages Cause Huge Sellers' Market for Top People, ENR, June 26, 2006

- 한국 건설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외부적으로는 시장 성장세로 호황 국면을 맞고 있는 반면 2~3년 전 기 수주한 물량을 소화하는 데도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고전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3배가 넘는 공사를 신규 수주한 국내 업체들의 고민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
-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전문 인력의 부족 상황으로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은 기피하게 될 것이고 수주액의 70%를 차지하는 플랜트 상품 군에서도 이미 상당한 금액을 수주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는 선별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7년도에 비해 크게 수주액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가능함.

소결

- 따라서, 2008년도는 수익성 사업의 선별적 선택과 인력의 소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소극적인 수주 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건설시장의 크기가 전년도 대비 성장성이 있고 해외시장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견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낙관적으로는 사상 처음 400억 달러 대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혹시 나타날 유가의 가격 급등으로 발주기관들의 시설 투자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¹⁷⁾을 포함하더라도 350억 달러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
-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8년 해외 건설시장 전체 규모를 7,950억 달러로 낙관적 가정을 한다면 이중 5% 정도만 국내 기업들이 수주하더라도 400억 달러대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7) Price Escalation is Stuck in High Gear ; Rising crude prices and changes at refineries limit supplies, ENR, June 26, 2006

■ 맺음말

- 세계 및 해외 건설시장은 향후 4~5년 간 지속적 성장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됨.
 - 중동 지역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벌어들인 달러를 석유 연관 시설뿐만 아니라 도시 연관 시설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나타남.
 - 산유국은 물론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신흥 개발국들이 사회간접시설 투자와 함께 성장 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와 도시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2008년 한국 건설의 해외건설 수주는 수익성 사업의 선별적 선택과 인력의 소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극적인 수주 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억 달러 수준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낙관적으로는 400억 달러대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해외 건설시장의 성장은 새로운 경쟁국과 경쟁 기업들의 진입을 유도하게 되는 등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수주 형태에 국내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이복남(연구위원, bnlee@cerik.re.kr)

장현승(연구위원, jang@cerik.re.kr)